

코스피 1,600 붕괴...두바이유 140불 돌파

유가 급등·인플레이션 압력 국내 증시 요동...하반기 경제 지표 비상

유가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등의 여파로 코스피지수가 1,600선이 무너지는 등 국내 증시가 요동치고 있다.

특히 국내 원유 수입의 80%를 차지하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하반기 경제 지표에 비상등이 켜졌다.

4일 코스피는 외국인인 매도 공세에 밀려 1,577.94로 마감됐다. 이는 전날에 비해 28.60포인트(1.78%) 떨어진 것으로, 증가기준 연속 최저점인 지난 3월17일(1,574.44)에 바짝 다가갔다.

외국인은 이날 2천663억원의 순매도를 기

록하며 20거래일 연속 매도행진을 이어갔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8.19포인트(1.50%) 내린 538.30으로 마감돼 7년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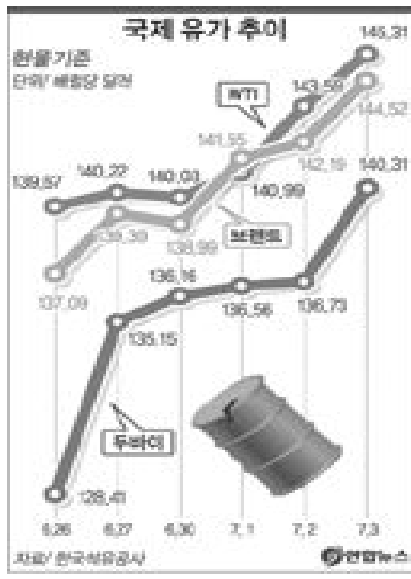
반면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3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3.58달러 오른 140.31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의 1단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의 발동 기준인 배럴당 150달러를 불과 10달러 남겨둔 것이어서 비상조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또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도 전날보다 배럴당 1.72달러 오른 145.29달러에 마감했고,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 역시 배럴당 1.82달러 상승한 146.08달러를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이날 국제유가의 상승은 지진 복구와 유틸리티를 앞둔 중국의 석유수요가 늘어난 것이라는 전망 등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유가와 국제 증시 악화 등으로 인해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날보다 5.40원어 오른 1,050.4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시설

지역건설업체 '연쇄 부도' 대책은 없다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 건설업체가 연쇄 부도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한다. 각종 부동산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가 앞친 데 맞춘 격으로 원자재값마저 급등해 문을 닫는 업체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지역 건설업체 붕괴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올 상반기 중 광주·전남에서 부도처리된 일반·전문건설업체는 27곳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68.8%나 늘어났을 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국 부도업체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의 경영난이 타 시·도에 비해 훨씬 심한 것이다.

실제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는 붕괴 직전이다. 올 상반기부도로 문을 닫은 지역 전문업체는 지난해보다 3배나 많은 23곳에 달한다. 연쇄 부도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건설업체의 연쇄부도는 참여정부 때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며 각종 규제를 지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해 건설경기를 침체시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여기에다 절감 등 건자재값의 급등까지 겹쳐 연쇄 부도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건설업체에 '공사를 수주해봐야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건설경기 침체는 심각하다.

건설경기 침체는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는 등 시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거래세, 보유세 등 세제완화를 통해 얼어붙은 주택건설 경기부터 되살려야 한다. 사회기반시설(SOC)사업의 조기 착공, 공공수주 물량 확대, 최저임찰제 확대 유보 등 지방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더 미뤄서는 안 된다.

시민 힘모아 촛불집회 '평화' 이어가자

주말인 오늘 광주에서도 대규모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다. '광주평화' 위원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광주·전남비상시국회의는 5일 오후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집회를 갖는다. 집회는 6·10 촛불집회 이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긴장감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집회에는 노동자와 농민, 종교계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다. 비상시국회의는 오후 5시 광주역에서 사전 집회를 갖고 금남로까지 평화행진을 벌인다. 민주당총 광주지역본부도 '총과업 승리 결의대회'를 연다.

광주는 서울 등의 심각한 폭력사태와는 달리 지난달 6일부터 큰 충돌없이 평화적으로 촛불집회를 가져왔다. 그러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정부는 엄정한 법 집행을 내세워 불법시위에 대한 강경 방침을 천명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는 촛불집회가 끝난 뒤 정부의 촛불집회 탄압에 항의해 광주지검까지 거리행진할 예정이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집회에선 먹물충 논란이 있었고 일부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과격해지는 조짐을 보였다.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지만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사태나 과잉집압은 없어야 한다. 광주는 지금까지 시민의 협조와 경찰의 배려로 평화집회를 유지해왔다. 충돌이 한 번 발생하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라 한다.

집회 참가자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9일 집회에선 먹물충 논란이 있었고 일부에선 경찰과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등 과격해지는 조짐을 보였다. 경찰이 평화적 집회를 최대한 보장한다고 하지만 우발적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찰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사태나 과잉집압은 없어야 한다. 광주는 지금까지 시민의 협조와 경찰의 배려로 평화집회를 유지해왔다. 충돌이 한 번 발생하면 사태가 확산될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시민들 모두 힘을 모아라 한다.

백악관, 부시 내달 방한 공식 발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데이비드 페리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가 다음달 한국과 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과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페리로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노동자와 농민, 축산농가, 기업 등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페리는 밝혔다.

부시의 방한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 인식 심기에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관측했다.

부시는 중국 방문 기간에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 진전 방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페리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한국을 방문한다고 백악관이 3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데이비드 페리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과 부인 로라 여사가 다음달 한국과 태국을 차례로 방문한 뒤 다음달 8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방문 기간에 이명박 대통령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양국 의회 비준과 지역 및 세계 안보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페리로 대변인은 설명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 노동자와 농민, 축산농가, 기업 등에게 커다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페리는 밝혔다.

부시의 방한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 앞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되지 않았다.

부시 대통령은 방한 기간에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 수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며, 한국 소비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안전 인식 심기에도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관측했다.

부시는 중국 방문 기간에 후진타오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 핵문제 진전 방안 등 광범위한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페리는 설명했다.

/연합뉴스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원점서 재검토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곧 용역 연구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대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허용 결정을 사실상 뒤집고 원점에서 재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4일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기피하는 사람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문제는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국방부가 작년 9월 대체복무 허용 방침을 발표했을 때도 사실상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면서 "국민 여론이 수렴되지 않으면 대체복무 자체를 시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종교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용역 연구를 곧 의뢰할 계획이며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무청에서 곧 용역 연구기관을 선정할 것"이라며 "대체복무 기간과 대체복무 대상자 등에 대한 종합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민주 내일 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5명) 선출

통합민주당 전당대회가 6일 잠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열린다. 이날 전당대회에서는 당 대표와 함께 5명의 최고위원도 선출한다.

당 대표로는 대세론을 펴온 정세균 후보가 우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막판 바람몰이에 나선 추미애 후보와 정대철 후보가 가파른 추격세를 보이는 흐름이다. 특히 4일 추미애, 정대철 후보가 '1차투표후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관세 유동성이 고조되고 있다.

'개원 국회' 의장 선출 실패

18대 첫 임시국회 파행속 종료... 헌정사상 첫 사례

18대 국회 첫 임시국회가 4일 국회의장 선출에 끝내 실패한 채 파행속에 종료됐다. 국회가 임기개시 후 개원 국회에서 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것은 헌정 60년 사상 처음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친박연대 및 일부 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가 국회의장 단독 선출 여부를 토론했지만, 내부

의견이 엇갈리는 데다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도 단독 선출에 부정적 입장을 밝힘에 따라 이날 의장 선출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의 전당대회가 예정된 6일 이후 국회의장 선출 및 개원 문제를 야당과 재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오는 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김형오 국회의장 후보자가 야당의 전당대회가 끝난 뒤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며 "오늘까지 (야당과의) 개인 협상은 전면 무효이며 다음주 재협상을 통해 빠른 시일에 개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로부터 임시국회 공동 소집에 대한 동의를 받아 3당 공동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이날 제출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방한중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예방을 받고 면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촛불시위, 슬기롭게 해결되길 기대”

潘 총장, 李 대통령 예방 5일 충북 고향 방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4일 '최고기 파동'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에 대해 "한국 정부와 국민이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와 회담을 마친 뒤 가진 내외신 회견에서 촛불시위에 대해 느낀 점을 묻는 질문에 "제가 비록 뉴욕에 살고 있지만 관심은

깊고 주의깊게 한국의 여러 정치상황, 국내 상황에 대해 지켜봤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 안녕이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중요하다. 동시에 국민들도 정부를 적극적으로 믿고 정부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제기준이나 국제협약 등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반 총장은 회견에서 반 총장과의 회담에 언급, "반 총장은 한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가 높으며 한국의 국력과 경제력에 걸맞

도록 기여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소개했으며 반 총장은 "한국 정부는 유엔을 통한 범 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기여를 증진시키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또 이날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 북핵문제 등 주요 국제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엔 간의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반 총장은 5일 고향인 충북 음성을 방문, 청주대에서 열리는 모의유엔총회에 참석한다. /연합뉴스

빛의만평

- 김중두

처음부터 비행기 태우지나 말지

전남도 투자협약 '대박'

투자박람회서 9조5천500억 유치... '실적 올리기' 지적도

3, 4일 이틀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회 지역투자박람회서 전남도가 투자협약 대박을 터뜨렸다.

4일 전남도 등 전국 시·도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서 16개 시·도는 총 52개사·1개 컨소시엄과 투자협약 또는 투자양해각서(MOU)를 통해 모두 18조92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는 이틀간 13개 국내의 기업으로부터 9조 5천500여억원의 투자를 이끌어내 가장 큰 성과를 거뒀으며, 광주시는 3개 외국기업과 581억원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도는 4일 미국 트러스트그룹 차이나펄스, 대만 건설업체 후주사와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

젝트)에 45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3일에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등 11개 기업과 5조1천555억원의 투자협약을 맺었다.

한편 포스코 광양제철 후관공장의 경우 이미 1년전에 포스코 자체 계획으로 투자가 결정돼 오는 23일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도 전남도가 신규 투자유치에 포함시켜 '실적 올리기'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사업의 경우 조금 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을 진행해 투자협약을 맺은 만큼 신규 투자 유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희준기자 chae@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祐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禔榮
대표전화 2200-551·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20 우편번호 501-7111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시 회 2 부 2200-619
편 집 부 2200-629	문 화 회 2 부 2200-618
정 치 부 2200-616	문 화 회 2 부 2200-628
경 사 부 2200-617	문 화 회 2 부 2200-627
사 회 1 부 2200-618	문 화 회 2 부 2200-690
(F A X 222-4267)	문 화 회 2 부 2200-570
	경 영 지원 국 2200-511
	문 화 회 2 부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 고 매 케 영 국 2200-521
	독 자 서 비 스 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세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